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맞는 첫 설을 앞두고 유통업체가 명절 선물세트 판매에 주력하고 있다. 올해는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가성비를 챙긴 선물세트와 고가의 프리미엄 선물세트 등 가격대의 폭을 넓혀 소비자의 선택지를 늘렸다. 또 가치소비 트렌드에 따라 친환경 패키지를 도입한 선물세트가 대세로 자리잡았다. 인기있는 계묘년 설 선물세트를 모아봤다. <편집자 주>

가성비 부터 프리미엄까지 환경 생각한 착한선물 ‘짚’



I 롯데백화점 I '설 선물세트' 본판매



한우등급·청과당도 상향 인증 수산물 등 품질상승

롯데백화점이 2일부터 전국 점포에서 설 선물세트 본판매를 시작해, 프리미엄 선물 수요를 적극 공략한다.

롯데백화점은 이번 설을 맞아 주요 선물 카테고리별 프리미엄 상품을 더욱 강화함과 동시에, 가치소비 트렌드에 맞는 친환경 콘텐츠도 다양하게 준비했다.

한우 등급과 청과 당도를 상향하고 인증 수산물을 확대 도입하는 등 선물의 품질을 더욱 높였다. 지난해 판매된 전체 한우 선물세트 중 1+ 등급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코로나 이전(2019년) 대비 약 30%p 증가한 점을 감안해, 올해는 1+ 등급 이상의 프리미엄 한우 선물 세트 품목 수를 40% 이상 늘려 더욱 다양하게 준비했다.

청과 선물 세트는 과일의 평균 당도를 기존보다 약 10% 높이고, 수산 선물 세트는 인증 선물 세트를 확보해, 상품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와인 또한 롯데백화점의 전문 소믈리에가 직접 큐레이션해, 업계 최고 수준으로 선보인다.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롯데백화점의 소믈리에가 이번 설을 맞아 '셀러 셀렉션'과 '데일리 셀렉션'을 테마로 추천 와인을 엄선해 준비했다.

친환경 콘텐츠도 강화했다. 롯데백화점은 이번에 업계 최초로 일반 한우보다 탄소 배출량이 65% 적은 저탄소 한우 선물 세트를 선보인다. 리사이클 소재로 제작한 보랭 가방에 넣어 판매한다. 지난 추석때 처음으로 도입해 큰 호응을 얻었던 보랭가방 회수 프로 모션은 '굿감'과 '정육' 세트뿐 아니라, '선어' 선물 세트까지 확대 진행할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10만원 미만 한우로 장바구니 부담 덜어요”

I 롯데마트 I 가성비 선물세트 확대

롯데마트가 오는 22일까지 선물세트 판매에 나서며 가성비 선물세트를 대거 늘렸다고 밝혔다.

고물가·고금리 현상으로 가성비 좋은 알뜰, 실속 선물세트를 찾는 고객이 크게 늘고 있다. 실제로 롯데마트가 준비한 가성비 선물세트의 매출을 살펴보면 사전판매 당시 전년 설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

롯데마트의 이번 가성비 선물세트 라인업에는 고물가 시대 소비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MD(상품기획자)들의 노력이 주효하게 작용했다.

먼저 롯데마트는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10만원 미만의 한우 '물가안정 기획세트' 물량을 전년 설 대비 30% 이상 확대 준비했다.

한우 직경매 자격을 갖춘 한우 전문 MD(상품기획자)가 매일 아침 총복 음성, 부천 축산물 공판



장으로 출근해 한우 시세가 전년 대비 하락한 시점에 미리 설 선물세트 사전 물량을 확보했고, 롯데마트의 자체 신선품질혁신센터에서 상품을 가공해 고품질의 한우를 가성비 선물세트로 선보일 수 있었다.

또 롯데슈퍼와 물량을 통합 소싱해 전년 대비 60% 이상 물량을 늘렸다. 이번 설 한우 선물세트는 지난해 설 선물세트 대비 5% 가량 저렴하다. <김서현 기자>

I AK플라자 I 설 명절 선물세트

수산·정육·과일 등 DIY '셀프 초이스 기프트' 확대

AK플라자는 오는 1월 23일까지 AK플라자 백화점 분당점, 수원점, 평택점 식품관에서 설 명절 선물세트를 판매한다.

AK플라자는 지난해 론칭한 '셀프 초이스 기프트'로 고객 선택의 폭을 늘린다. 명절 한정 운영 중인 셀프 초이스 기프트는 AK플라자 식품관이 직접 매입한 수산, 정육, 과일을 고객이 원하는 크기와 형태의 선물세트로 구성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DIY형 선물세트다.

이번 명절에는 인기 품목인 한우 세트에 변화를 줬다. 특히 올해 설부터는 고객이 선택 가능한 한우 품목에 중저가 한우 상품군을 대폭 추가했다. 중저가 한우 셀프 초이스 기프트는 상품 구성에 따라 10만 원 초반부터 20만 원 중반대의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셀프 초이스 기프트뿐 아니라 고물가 시대에 작은 사치를 즐기려는 '스몰 럭셔리' 트렌드를 반영해 '마이하트' 세트와 '달콤 제주 삼색 향기' 세트도 선보인다. 마이하트는 청포도와 적포도를 교배해 붉은색 빛을 띠는 포도로 자두·포도·사과 등 여러 가지 과일 맛이 나고 평균 당도도 우수하다. 달콤 제주 삼색 향기 세트는 제주 서귀포 지역의 우수농가에서 생산된 한라봉, 레드향, 천혜향으로 구성된 고품질 만감류 선물 세트다.

또 늘어나는 와인 및 위스키 애호가들을 겨냥해 희소성 있는 프리미엄 와인(▲매종 르루아 ▲루이라푸르) 및 희귀 고연산 위스키 '달모어 컨스텔레이션' 등을 한정 수량으로 선보인다. <김서현 기자>



I 현대백화점 I 설 선물세트



가성비·가성비 투트랙 전략 소포장 한우부터 영광굴비까지

현대백화점은 21일까지 압구정본점을 포함한 전국 16개 점포 식품관과 온라인몰(더현대닷컴·현대식품관 투홈·현대H몰)에서 설 선물세트 본판매 행사를 진행한다.

현대백화점은 대표 명절 선물인 한우 선물세트를 역대 최대 물량으로 선보인다. 특히 실속 선물 세트 수요에 맞춰 10만원대 소포장 한우 세트 물량을 전년 대비 40% 확대 운영한다. 프리미엄 선물 수요를 겨냥해 100만원 이상 초(超)프리미엄 선물세트 물량도 전년 대비 50% 이상 늘렸다. 1++등급 한우 중에서도 마블링 최고 등급(No.9)만 사용한 '현대명품 한우 넘버나인'과 '현대명품 한우 프리미엄' 등이 대표적이다.

수산물 세트의 경우, 실속 선물세트인 '영광 특선 참굴비 매(梅) 세트'부터 국내에서 연간 100여 마리밖에 잡히지 않는 35cm 이상 참굴비 10마리 '현대명품 참굴비 수(秀)세트'까지 다양한 가격대의 선물세트 100여 품목을 선보인다. 청과 선물세트 구성도 다양화 했다. 명절 대표 과일인 사과·배는 물론, 최근 선물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사인머스켓·망고 등 디지털 과일을 혼합 구성한 선물세트 물량을 지난해보다 20% 확대해 선보인다.

300억원 규모의 와인 선물세트 총 1만 2000여 세트를 준비해 역대 최대 물량의 와인 선물세트도 선보인다. <김서현 기자>

물가 폭등에도 1년전 가격으로 '착한 굴비'

I 이마트 I 굴비세트 12종

이마트는 22일까지 굴비 설 선물세트를 지난해 설·추석 가격으로 판매한다. 굴비는 지난해 10월부터 산지시세가 20% 급등해 떨어지지 않고 있다.

총 12종의 굴비세트를 준비했으며 대표세트는 '명품골드 영광참굴비 1호', '특선 영광 참굴비 1호'가 있다. 최고급 굴비세트 물량을 최대 50% 추가 확보했다.

굴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잦은 풍랑주의보 등 바다 조업 환경 악화와 참조기 어군 형성 부진 등으로 어획량이 10월에 전년 동기 대비 약 40%, 11월에는 약 25% 줄었다. 산지시세 역시 22년 10월, 11월의 경우 2021년 동기간 대비 각각 15.2%, 20.8% 급등했다.

이마트는 본격 성어기에 진입한 2022년 10월 전반기 어획량(1881톤)이 2021년 10월 동기간 대비(4659톤)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을 파악하



고 참조기 경매장을 보유한 목포수협, 한림수협 등을 통해 설 굴비세트 물량을 추가 확보했다. 이외에도 제주 대왕갈치, 옥돔, 금태 등으로 구성된 인기 프리미엄 세트 판매가 역시 지난해 명절 가격 그대로 동결했다.

지난해 추석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맞이한 명절임에도 프리미엄 선물세트 트렌드가 지속되었으며, 특히 어종으로 구성된 프리미엄 수산물 세트 역시 전년도 추석대비 약 12% 매출이 성장했다. 이마트는 산지 협력사와 사전비축을 통해 인기 프리미엄 세트 물량을 22년 추석 대비 20~30% 늘리며 판매를 동결할 수 있었다. <김서현 기자>